

# ‘제15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고객홍보처

2017년 11월 29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홀에서 ‘제15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매년 가장 좋은 품질의 한우·한돈·육우·계란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 시상을 해오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12개월간(2016년 9월 ~ 2017년 8월) 출하한 축산물의 등급판정 결과를 분석하고 축종별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선정 기준에 따라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수상 농가를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한우의 경우 지난 1년간 30두 이상 출하하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70% 이상인 농가, 육우의 경우 30두 이상 출하하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돼지는 2,500두 이상 출하하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37% 이상인 농가, 계란은 판정량 1,000만개 이상이며 1\*등급 9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점 부분에서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사육개월령에 대한 가점이 강화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축산시책 참여도가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친환경, HACCP, 무항생제 등 건강한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수상 농가를 선정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별 맞춤 컨설팅과  
등급판정 결과 환류 등을  
통해 우수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며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돈 부문 남상현(경기 여주시) 씨는 모돈 420두에 비육돈 5,800여두를 일관사육하는 농가로 1년간 돼지 9,110두를 출하했으며, 등급판정 결과가 가장 우수했다. 또한,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전국 평균(63.7%)보다 22.3%p 높은 86%이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전국 평균 29.1% 보다 21.0%p 높은 50.1%에 달했다.

국무총리상은 한우 부문 홍수범(경남 김해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한우 부문 김희종(경기 안성시), 육우 부문 유승무(경기 안성시), 계란 부문 손병원(경북 영주시)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한우·한돈·육우·계란 부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과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상 등 총 34개 농가가 올해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7 축산물 직거래 우수 유통업체' 선정도 이뤄졌다.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경로의 비효율 개선을 촉진하고자 유통단계를 혁신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한 '축산물 직거래 우수 유통업체' 5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축산물 직거래로 유통비용이 절감된 우수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유도, 유통업계에는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평가 결과, 최우수 직거래 유통업체로 대구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성문)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우수 직거래 유통업체로 상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성영욱),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성기), 안양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손연식), (주)화왕산한우(대표 공기영)가 선정되어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을 수여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별 맞춤 컨설팅과 등급판정 결과 환류 등을 통해 우수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며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과를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수상농가의 생산 노하우에 대한 축산업계 공유와 현장 견학 등으로 우수 축산물 생산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